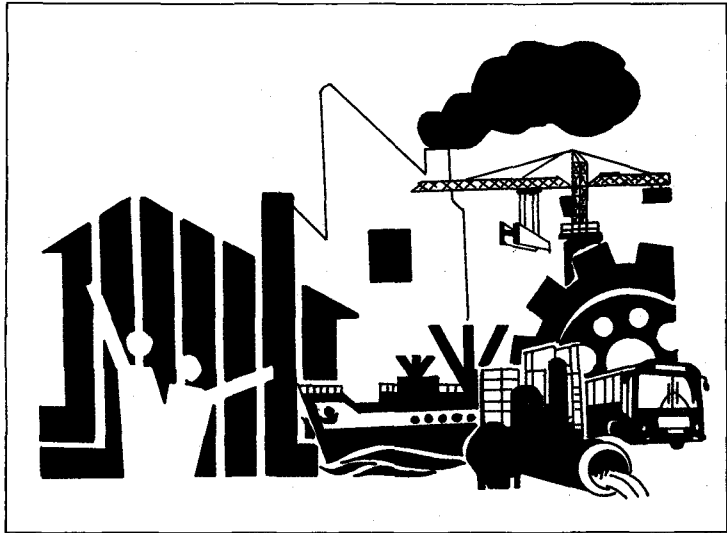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의 발전취」란 제목의 책자를 보면 한국은 지난 30년간(61~91년) 1인당 GNP가 80배 가까이 늘고, 외채 규모는 1인당 61년 3달러에서 9백4달러로 불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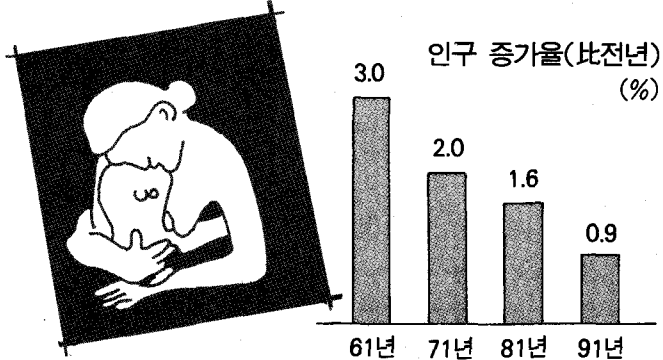
또 경제 발전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업률은 66년 7.1%에서 2.3%로 낮아졌으나 승용차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로 본 한국의 30年

■인구 증가율 및 평균수명

인구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 61년 3%에서 91년에는 0.9%에 그쳤다.



한편 남녀 평균수명은 지난 66년에는 각각 59.7세와 64.1세였으나 90년에는 각각 67.4세와 75.4세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주요사망 원인(90년 기준)

성별	순위	원인
남자	①	뇌혈관질환
	②	교통사고
	③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④	위암
	⑤	고혈압성질환
	⑥	간암
여자	①	뇌혈관질환
	②	고혈압성질환
	③	위암
	④	교통사고

■ 교육문화

국민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61년 62.9명에서 현재 40.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도 61.2명에서 34.4명으로 줄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다.

전국의 극장수는 61년 3백2개소에서 현재 7백62개소로 2.5배 늘어났으나 오히려 1인당 연간 관람횟수는 2.3회에서 1.2회로 2배 정도 줄었다.

■ GNP

61년도에 21억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총생산은 91년 현재 1백34배 늘어난 2천8백8억달러로 1인당 GNP도 82달러에서 6천4백98달러로 79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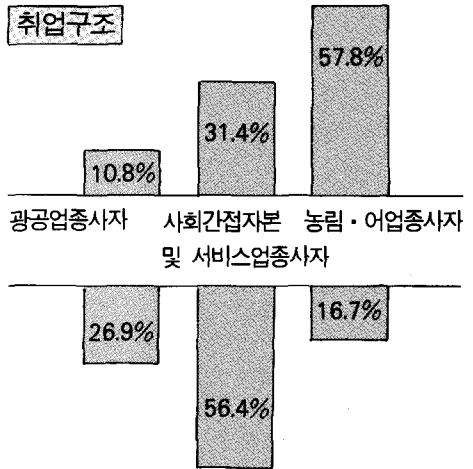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은 1천1백원에서 90년에는 76만7천2백원으로 늘어났다.

대외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금-외환보유고는 61년도에 비해 66배 늘어난 1백37억달러로 늘어났고, 국민 1인당 외채규모는 61년 3달러에서 9백4달러로 불어났다.

■ 고용근로산업

경제활동 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는 66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고 취업자 수도 2.2배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7.1% (63만명)에서 2.3% (44만명)로 낮아졌다.

취업구조



취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제조업이직률이 취업률을 앞지르고, 특히 최근 5년간은 구직자수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수가 오히려 많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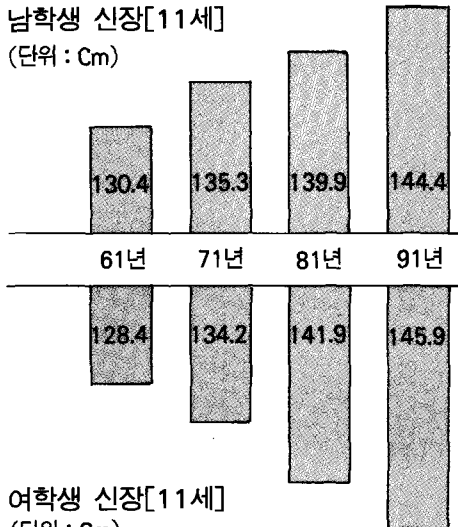
■ 의료복지사회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1년 3천66명에서 71년 2천29명, 81년 1천6백31명, 91년 현재 9백51명으로 30년전보다 3.2배 가량 감소했으며, 1개 병상당 인구수도 2천5백14명에서 4백4명으로 6.2배 줄어 의료환경이 크게 좋아졌다.

30년전만해도 홍역, 백일해 등 전염병이 극성을 부렸으나 의료 보건환경의 향상으로 현재는 당시의 1~1.5% 수준으로 급감했고, 소아마비환자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보건지표의 하나인 학생의 신장 및 체중증가추이를 보면

남학생 신장[11세]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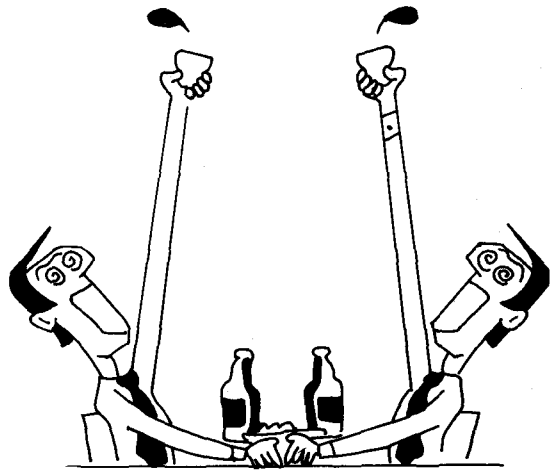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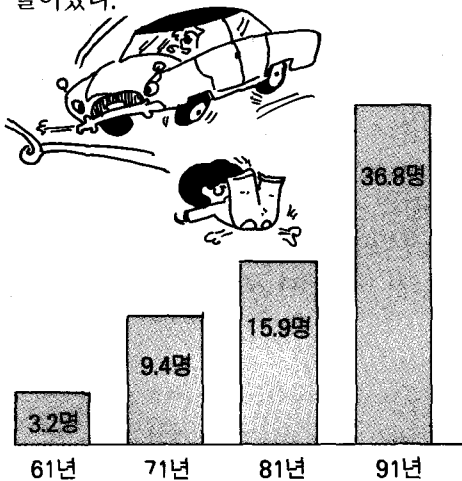


여학생 신장[11세]
(단위: Cm)

위의 [표]와 같이 남학생은 14.0Cm, 여학생은 17.5Cm가 커졌고, 체중 역시 11세 어린이를 기준으로 남학생은 27.8Kg에서 37.6Kg, 여학생은 27.0Kg에서 38.3Kg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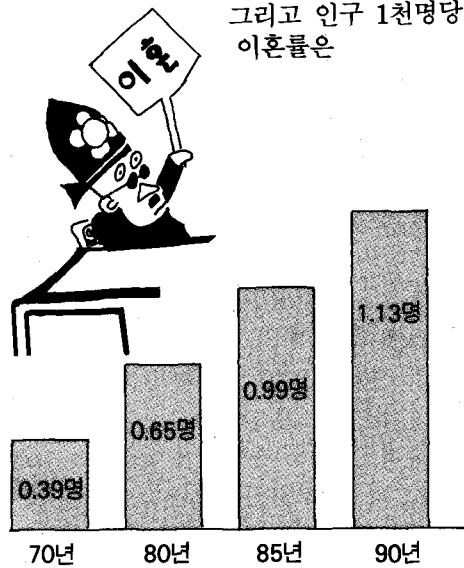
■자동차 보유대수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쏠차종기준으로 61년 1.2대에서 91년 현재 98.2대, 승용차만으로는 0.1대에서 58.7대로 늘어났다.



하루평균 교통사고로인한 사망자수는 위의 [표]와 같이 급증추세에 있다. 한편 국민 1인당 주류소비량은 83년 55ℓ에서 '91년 65ℓ로 늘어났고, 담배소비량은 71년 75갑에서 1백4갑(외국산포함)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인구 1천명당 이혼률은



위의 [표]와 같이 높아졌고 범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